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	
배포일자		2024년 4월 24일(수) 총 3매			
담당 부서	위생정책과	담당자	• 가공식품팀장 • 담당자	유경철 ☎440-2796 이한기 ☎440-2797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 식품 관리, 안전성 검증

- 인천시, 2023년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-

- 연수구·부평구·계양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 -

인천시의 식품 관리가 공식 기관으로부터 그 안전성을 검증받았다.

인천광역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2023년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’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인천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 및 글로벌식품산업 허브도시에 걸맞게 4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관리 도시 이미지를 구축했다.

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의 항목은 ▲기반시설 구축(27%) ▲기초 위생 관리(63%) ▲정부 주요시책분야(10%) ▲가점(10%)의 4개 분야와 인구 10만 명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및 직무교육 이수율, 현장 보고 장비(테블릿PC) 활용률과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, 위해 식품 회수 실적, 민원 기한 내 처리 비율, 지자체 특수 우수시책 추진 등 13개 지표다.

인천시는 식품안전관리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, 기초 위생관리, 정부 주요 시책 분야 적극 추진 등 식품안전관리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‘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’으로 선정됐다.

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개소한 인천시는 ▲국내·외 판로개척 사업 ▲찾아가는 유통전문가 컨설팅 및 안심 멘토링 사업 식품위생업소 전문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, ▲인천형 안심식당 지정 ▲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▲국민다소비 유통식품 관리 ▲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강화 등 식품 안전 및 시민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.

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식품의 제조부터 유통, 소비 단계까지 철저한 지도·점검은 물론 식품업체들의 국내·외 판로개척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식품산업 육성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연수구·부평구·계양구도 ‘2023년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’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식품관리 안전도시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.

<관련사진> 식품제조·가공업체 현장 멘토링

